



2014년 10월 7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10월 만기: 과도한 하락 쓸림

• 이머징마켓 동향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이머징증시 반등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태광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생활건강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 분석

건설, 음식료 담배, 전기 전자, 삼성SDI, 영원무역, 현대차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10/06(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31.64	2,026.60	2,020.09	1,991.54	1,976.16	1,968.39	
	등락폭	-2.47	-5.04	-6.51	-28.55	-15.38	-7.77	
	등락종목	상승(상한)	305(2)	255(1)	395(4)	190(6)	446(5)	358(7)
		하락(하한)	499(0)	576(4)	440(0)	648(0)	384(0)	481(3)
	ADR	93.25	89.06	88.32	85.38	88.02	87.87	
	이격도	10 일	99.53	99.33	99.12	98.06	97.65	97.68
		20 일	99.14	99.01	98.83	97.62	97.08	96.90
	투자심리	40	40	30	20	20	10	
	거래량 (백만 주)	314	340	323	352	323	315	
	거래대금 (십억 원)	3,924	4,482	4,736	4,441	4,730	4,197	
코스닥	코스닥지수	577.66	569.27	573.22	566.99	569.84	566.27	
	등락폭	0.18	-8.39	3.95	-6.23	2.85	-3.57	
	등락종목	상승(상한)	305(11)	255(6)	395(7)	190(7)	446(9)	389(8)
		하락(하한)	499(1)	576(3)	440(2)	648(1)	384(1)	568(5)
	ADR	92.45	88.80	87.00	82.95	86.38	85.47	
	이격도	10 일	100.29	98.77	99.44	98.50	99.12	98.76
		20 일	100.81	99.33	99.99	98.93	99.41	98.80
	투자심리	40	40	30	20	20	10	
	거래량 (백만 주)	398	409	387	388	332	353	
	거래대금 (십억 원)	2,267	2,389	2,390	2,595	2,136	2,26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24.6	1,275.1	963.8	176.3	140.5	277.7	66.3	31.3	271.735	52.0
	매도	1,784.9	1,477.2	915.9	176.2	129.9	232.7	81.5	37.5	258.2	37.5
	순매수	139.7	-202.1	47.9	0.0	10.7	44.9	-15.1	-6.2	13.6	14.5
	10월 누계	384.4	-785.7	342.9	17.8	5.4	229.6	-32.6	-22.6	145.3	58.4
	14년 누계	111.0	6,715.4	-5,455.1	-3,155.8	583.4	-2,825.8	-561.9	-2,022.5	2,527.4	-1,371.3
코스닥	매수	2,013.3	121.8	141.7	30.7	19.0	41.4	17.2	2.5	30.9	14.3
	매도	1,969.9	168.8	130.2	39.3	16.4	26.8	10.0	2.1	35.6	22.1
	순매수	43.4	-47.1	11.5	-8.6	2.5	14.7	7.2	0.4	-4.7	-7.9
	10월 누계	10.2	-49.9	49.0	-10.8	17.3	36.8	4.9	4.8	-4.1	-9.3
	14년 누계	344.6	719.3	-79.7	-19.4	161.6	-246.2	-75.4	-33.1	137.8	-984.2

10월 만기: 과도한 하락 쏠림

2014년 Target KOSPI	2,070pt
12MF PER	9.88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7.9%P

- ▶ 9월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 둔화. 그러나 국내기관의 매수 유입은 지속
- ▶ 만기주 프로그램 매매는 매도 우위 나타나더라도 규모 제한적. 부담 크지 않을 전망
- ▶ 풋콜 레이쇼, 공매도 급증 등 하락 쪽에 과도한 쏠림 신호. 단기 반등시도 고려

■ 프로그램 매도 우위 예상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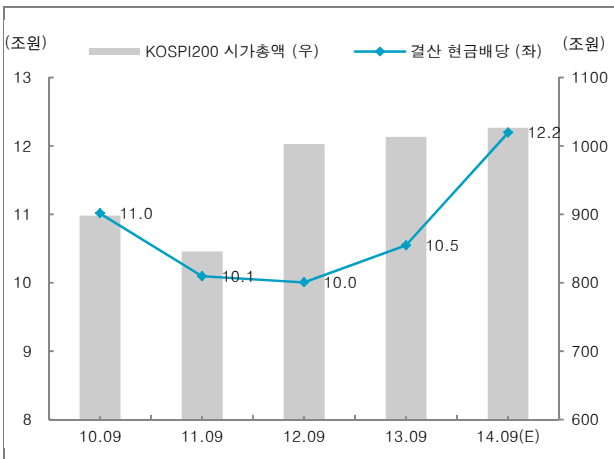
9월 이후 프로그램 매수 둔화

9월 만기 이후 외국인의 주식매도가 심해졌다. 특히 9/18일 현대차의 한전부지 고가(?) 낙찰 이후 외국인 매도 규모가 커지는 모습이다.

EM에서의 자금 이탈과 함께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외국인은 매도로 반전했지만, 투신과 증권 등 국내기관의 매수 유입으로 전체 프로그램 매매는 매수 유입이 이어지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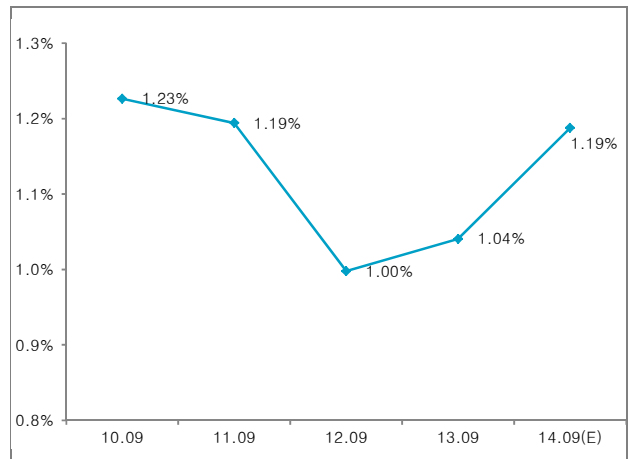
지난 주 데일리에서 언급했지만, 올해 KOSPI200 종목들의 결산 현금배당은 3월 결산 법인들의 12월 결산 전환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12.2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 배당수익률은 1.19%로, 2012년, 2013년 9월말 시점보다 높다.

[그림 1] KOSPI200 결산 현금배당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시가총액은 매년 9월말 기준

[그림 2] KOSPI200 배당수익률 추이 (매년 9월말 기준)



자료: KRX, 한국투자증권 결산 현금배당 기준

경험적으로 10~12월은 연말 배당 영향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 시기이고, 올해는 전년보다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말 프로그램 매수 유입에 대한 기대는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수 여력이 존재하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익거래 매도 우위 예상
그러나 규모는 제한적 수준

만기를 앞두고 차익거래 쪽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7월 말~8월 중순까지 지수 급등 구간에서 유입된 매수 물량이다. 지난 9월 만기에도 이 물량의 청산으로 지수가 하락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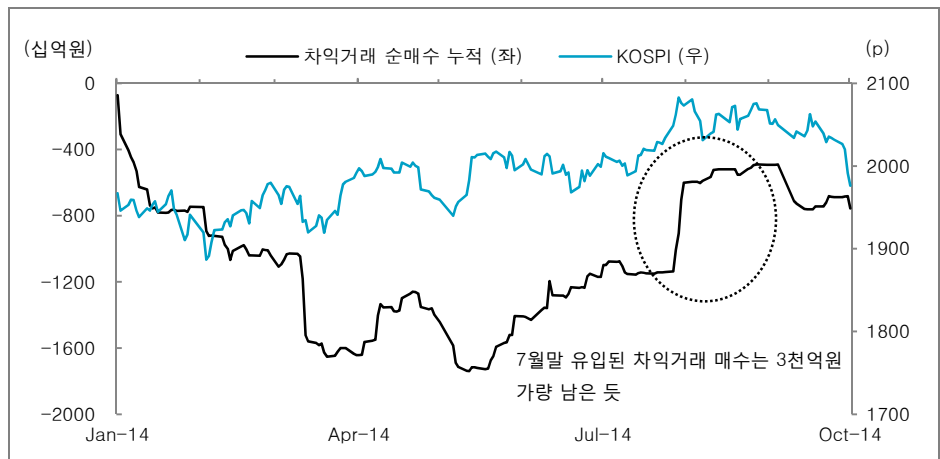
해당 물량은 3천억원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입 당시 선물 베이스가 이론치를 +0.5p 이상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래세 등 비용을 고려했을 때 베이스가 이론치를 -1.0p 가량 밀도는 수준, 현재 기준으로는 선물 백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본격적인 매도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월물인 선물 9월물의 이론 베이스는 1.0p 초반 수준이다.

베이스는 지난 주까지 약세가 지속돼 10/2일 장중에는 0.5p까지 하락했지만, 전일은 다시 이론 이상으로 확대됐다. 차익거래 대량 청산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만기일 증가 매도 대기물량
(컨버전) 미미

장 중에 소폭 차익거래 순매도가 예상되지만, 지난 9월 만기와 같은 ‘만기충격(만기일 증가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물-합성선물 스프레드(컨버전)가 0.9p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장중 선물 베이스가 스프레드보다 낮은 상황이어서 컨버전을 이용한 차익거래 청산보다 장 중 청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림 3] 차익거래 순매수 누적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 글로벌 주식에서 8주만에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출

글로벌 주식에서 8주 만에
가장 큰 폭 자금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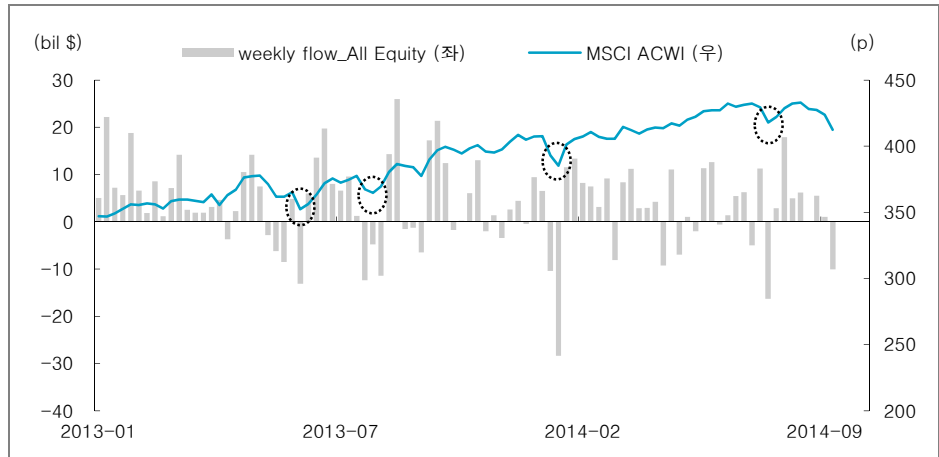
한편 EPFR이 집계하는 글로벌 EM 주식형 펀드플로우는 2주간 자금 유출 후 지난 주(10/1일) 기준으로는 소폭이나마 자금 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둔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지난 주 글로벌 펀드플로우에서 특이한 점은 전체 주식형펀드에서 대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한 점이다. 선진국과 이머징을 합한 전체 주식형 펀드에서 지난 주 -101억 \$의 자금이 유출됐는데, 8월초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규모 자금 유출은
오히려 증시 반등으로
연결됐던 경험

흥미로운 점은 주식에서의 극단적인 자금 유출이 종종 Contrarian한 반등 신호로 잘 들어맞았다는 점이다. 올해 2월 초나 8월 초의 경우도 대규모 자금 이탈 후 오히려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던 경험이 있다.

[그림 4] 주식에서의 대규모 자금 이탈은 Contrarian한 반등 신호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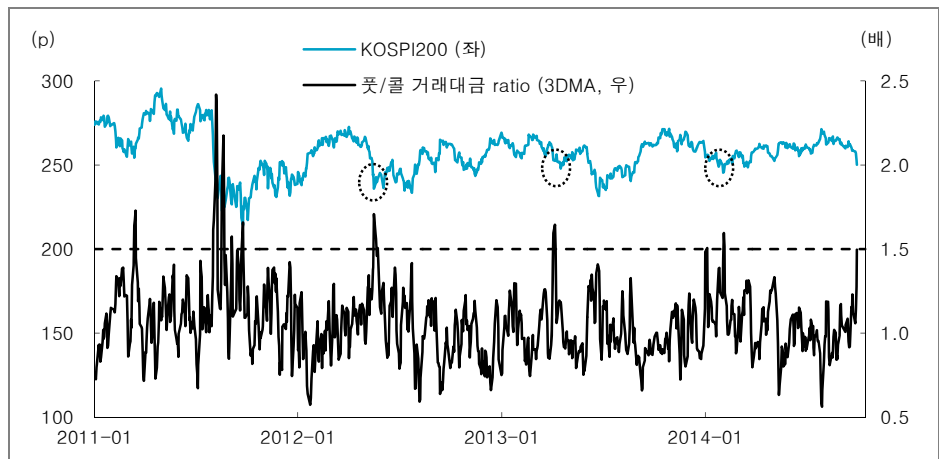
■ 과도한 하락 쓸림, 단기 반등신호

풋콜 레이쇼, 공매도 급증
등 과도한 하락 쓸림 신호

유사한 하락 쓸림 신호가 지난 주 국내 증시에도 발생했다. 일단 대표적 반대지표인 풋콜 레이쇼(PC ratio)에서 하락 쓸림 신호가 나타났다.

풋콜 레이쇼는 1.5배를 상회(풋옵션 거래대금이 콜옵션 거래대금의 1.5배 상회)할 경우 지수의 단기 반등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 10/2일 풋콜레이쇼가 1.5배까지 상승했다.

[그림 5] KOSPI200 Put/Call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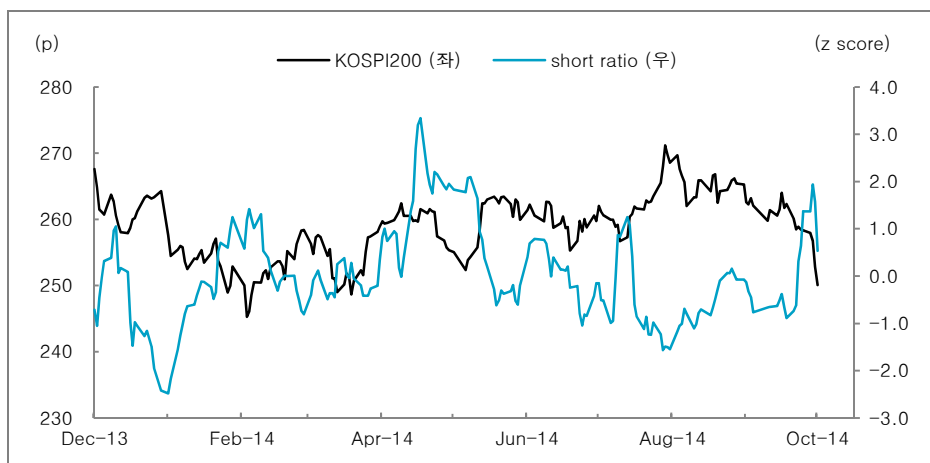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공매도가 급증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주 KOSPI200 공매도/거래량 비율 (short ratio)은 지난 2월 초 지수 하락 당시보다 높은 수준까지 급등했다. 통상 공매도 증가는 지수 하락과 동반해서 나타나지만, 과도한 수준까지 공매도 급증은 풋콜 레이쇼와 마찬가지로 반대지표로 작용한 경우가 많았다.

지표들을 통해 보면 시장의 하락 솔림이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보여, 단기 반등시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KOSPI200 공매도/거래량 비율 (Short ratio, 5MA, 정규화)



자료: 한국투자증권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이머징증시 반등

- ▶ 상해종합지수는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7일 휴장, 8일 개장 예정
- ▶ 홍콩H지수는 해외 지표 호조, 후강통 정책 기대감으로 0.6% 상승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저가매수세 부각되며 1.0% 반등
- ▶ VN지수는 지표개선, 외국인 순매수세 전환 등으로 0.5% 상승

■ 중국 시장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7일 휴장, 8일 개장 예정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7일 휴장, 8일 개장 예정

■ 홍콩 시장

홍콩H 0.6% 상승, 은행, 보험, 전력 등 대형주 반등

홍콩H지수가 10,409p로 직전 거래일 대비 0.6% 상승하며 이틀째 강세를 유지했다. 직전일 미국 실업률 등 고용지표 호조에 동조하며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등락을 보이다 오후 장에 상승폭을 확대했다. 민주화 시위로 홍콩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시위강도가 직전일에 비해 약화됐다. 또한 10월의 후강통 정책시행을 앞두고 홍콩거래소에서 막바지 준비단계에 있다고 재언급해 후강통 기대감이 컸다. 최근 주가 하락이 컸던 종목에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강세를 견인했다. 카지노, 부동산, 은행, 보험, 증권, 전력, 전기차 등 대형주들이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 통신 등은 하락했다.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 1.0% 반등, 은행, 통신, 설비기계 등 강세

자카르타종합지수는 1.0% 반등하며 5,000선을 다시 상회했다. 장 중 신임 대통령에 대한 기대 약화로 한때 하락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강세로 전환하며 상승 폭을 크게 확대했다. 최근 약세 이후 주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은행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그 외 통신, 설비기계 업종 등은 올랐고 금속주도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와 동조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5% 상승
부동산, 에너지, 보험, 음식료 등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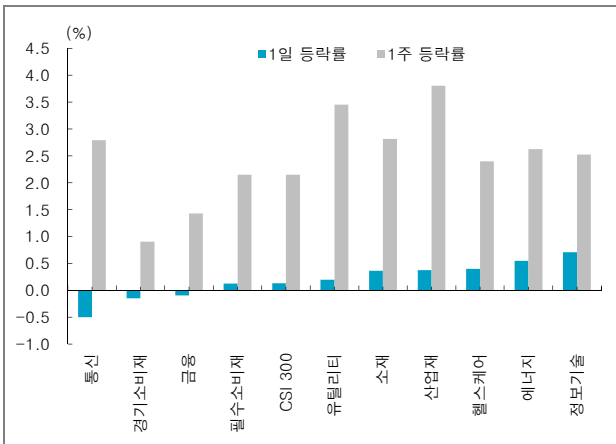
VN지수는 0.5% 상승했다. 지표개선, 외국인의 순매수세 전환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환율 안정, 금 가격 약세 등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약세 이후 밸류매력 부각으로 부동산주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그 외 개인들의 자금 유입으로 에너지, 보험 음식료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인민은행, 안정적인 통화정책 지속, 적절한 유동성 공급 유지할 것 국무원, 천진 항구의 추가 대외개방 계획 승인 싱가폴과 곧 통화 직접거래 개시할 전망-연합조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014년 GDP대비 재정적자 2.4% 이하로 통제해야 할 것
태국	재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한 추가 부양책 실행할 것
베트남	중앙은행, 2014년 연간 기준환율 최대 1.4% 인상할 계획 (6월말 1.0% 인상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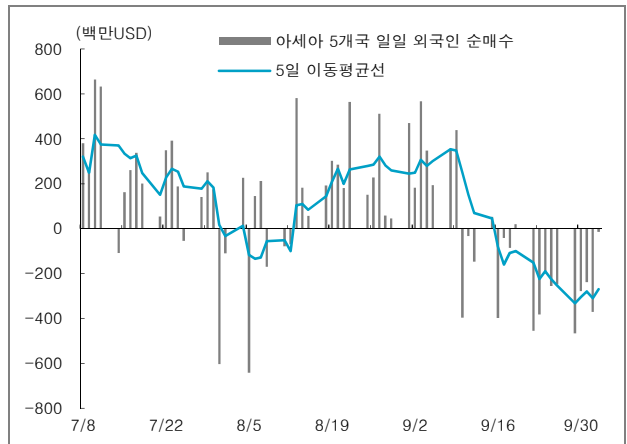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구분	10/1(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63.87	휴장	2.34	0.00	11.72
홍콩 H	10,409.72	0.59	-2.17	0.96	-3.76
중국 차스닥	1,540.88	휴장	2.66	0.00	18.12
인도 SENSEX	26,567.99	휴장	-0.66	-0.23	25.49
인도네시아 JCI	5,000.14	1.03	-2.76	-2.68	16.98
태국 SET	1,551.49	-1.20	-2.16	-2.16	19.46
베트남 VN	614.42	0.47	2.44	2.61	21.76
MSCI 이머징마켓	997.27	0.48	-1.20	-0.80	-0.54

주:3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의 매도세로 양지수 동반 하락

- 미국증시는 실업률이 지난 2008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 3대지수 모두 1% 이상 큰 폭으로 상승 마감. 1,98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반전, 1,970P선을 이탈하며 하락 마감.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미 FOMC 의사록 공개 및 원/달러 환율급등 등에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됨. 570P선을 회복하며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도세로 하락반전하며 566P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연일 신저가를 기록했던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하반기 업황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정유주가 상승세를 보임. 한전 부지 인근의 부동산을 보유한 풍국주정이 자산가치 재평가 기대감에 급등했으며,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원익IPS가 급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계 경쟁 심화 우려감에 5% 이상 급락. 북한의 고위급 인사의 방문으로 남북 정상회담 및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며 대북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신작 흥행 소식 및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모바일게임주가 강세를 보임. 반면, 모바일게임 '쿠키런'으로 유명한 데브시스터즈는 차익실현 매물로 코스닥 신규 상장 첫날 14% 이상 급락했으며, 3분기 적자 지속 전망에 인터플렉스가 하한가를 기록

종목/이슈	내용
SK이노베이션(096770) ▶77,800(+3.73%)	실적 개선 기대감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 -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정유주에 대한 실적 부진 우려가 고조되며 최근 약세를 보였으나 4분기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 - 아울러, SK루브리컨츠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렉솔(Repsol)과 함께 건설할 스페인 카르타헤나 윤활기유 공장이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
풍국주정(023900) ▶10,900(+7.39%)	자산가치 및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 -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 한전 부지를 인수함에 따라 인근에 보유한 동사의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에 급등세 - 아울러, 쌀쌀한 가을 날씨로 소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소주 출고량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대북 관련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기대감에 강세 -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이화공영(001840), 현대상선(011200), 현대엘리베이(017800), 이화전기(024810), 재영솔루텍(049630), 에머슨퍼시픽(025980, 이상 상한가), 남해화학(025860, +9.67%)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용
한국콜마홀딩스(024720) ▶41,700(+6.79%)	- 중국 화장품 사업의 성장 및 홈쇼핑 채널을 통한 매출 증대 등 자회사 한국콜마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며 신고가 경신
대현(016090) ▶3,190(+7.05%)	- 중국 국경절 연휴로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행진. 동사의 의류 브랜드 '모조에스핀'은 중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태광 외 5개 종목

- 신규:없음

- 제외: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태광 (023160)	15,050 (-4.1)	15,700 (09/29)	- 2012년 발생한 불량제품 보상 문제로 이후 2년간 수주,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나 설비증설 및 내부품질 감독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메인 밴더의 지위를 회복 중 - 2013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사들의 산업설비(정유/화학/발전 플랜트) 수주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했으며 호황기 수준의 수주 모멘텀 예상. 수주 모멘텀과 함께 제품 Mix 개선으로 2분기를 바닥으로 외형 성장세가 재개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풍산 (103140)	28,800 (-11.9)	32,700 (09/12)	- 3분기 연결 영업이익 64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00% 이상 증가 예상 - 구리가가격의 안정화, 환율 안정, 해외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산부문의 장기 성장성, 동래공장 개발 가능성 등으로 자산가치 재조명 가능성
현대백화점 (069960)	147,500 (-9.0)	162,000 (09/02)	- 내수 부양책, 소비심리 개선, 객단가 상승, 이연소비 등을 감안할 때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기존점 매출액 증가율은 4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2015년과 2016년 사이 총 6개의 신규 개점으로 인한 실질 영업면적 증가율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4.3%, 28.5%에 달해 향후 2년간 고성장세 예상 - 하반기 내수 부양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여타 유통주 대비 높은 성장 잠재력,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평화정공 (043370)	20,750 (-4.2)	21,540 (08/13)	- 전장관련 신제품들(Active hood, 자동담김장치, Power trunk)에 대한 채택 차종 증가와 고객 베이스 확대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예상 - 인도와 중국에 증설 중인 공장이 각각 3분기와 4분기에 완공되면 현재 20% 수준인 현대/기아차 외 매출비중이 2년 내 30%까지 확대될 전망
삼영이엔씨 (065570)	9,200 (-0.1)	9,210 (08/06)	- 항해안전과 직결된 선박전자장비 전문업체로 국내 유일의 상장업체로, 대형 선박에만 적용됐던 법령규제 장비가 중소형 선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국내어선 감척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내수시장은 항해안전 관련 규제 강화, 마리나 활성화 등으로 회복/재성장할 수 있는 여건 형성 - 중장기적으로 e-내비게이션 도입, 기존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수혜 예상
에스원 (012750)	81,700 (+12.4)	72,700 (07/25)	- 건물관리사업 양수와 시스템경비 가입자수 증가, 보안상품 판매 성장으로 향후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 28% 예상 - 주력 사업부인 보안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규사업의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 - 삼성 에버랜드로부터의 건물사업 양수를 통한 외형 확대와 건물 에너지 관리(Building Energy ManagementSystem: BEMS)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G생활건강 외 5개 종목

- 신규:없음

- 제외: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4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생활건강 (051900)	500,000 (+0.0)	500,000 (08/13)	4,639	517	363	21,759	23.0
			-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2분기 실적은 개선세로 전환, 장기적인 이익 개선 시그널 확인 - 2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음료사업은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며 점진적인 실적 개선 예상 - 실적 부진, M&A 기대감 약화 등과 관련한 주가 선반영 과정은 일단락, 내수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제일기획 (030000)	21,200 (-3.2)	21,900 (06/26)	3,228	162	126	1,096	19.3
			- 국내 광고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중국 광고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삼성전자의 신홍국 마케팅 확대, M&A를 통한 광고 대행 능력 강화, 비계열사 광고주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성장성 대비 저평가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NAVER (035420)	779,000 (-1.0)	787,000 (06/23)	2,725	791	575	19,289	40.4
			- 라인 가입자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 모델다변화로 라인 매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하고 유행에 덜 민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은 여타 글로벌 SNS업체들 대비 상대적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페쇄형 SNS인 밴드(BAND)도 글로벌 가입자 증가와 모바일 게임 출시로 성장 기대				
삼성SDI (006400)	116,000 (-23.9)	152,500 (03/14)	5,038	136	310	6,896	16.8
			- BMW의 신제품 출시 및 Global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용 2차전지 부문의 고성장 기대 유효 - 소형 전지는 Mobile 신제품 출시 및 Tablet PC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제품믹스 조정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2차전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PBR 0.9배) 재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151,000 (-11.5)	1,301,050 (02/17)	209,159	29,766	25,187	166,768	6.9
			- 성장세 둔화와 함께 업체간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7				
SK텔레콤 (017670)	276,500 (+21.5)	227,500 (01/15)	17,632	1,904	1,731	24,401	11.3
			-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마케팅비용은 감소로 수익성 호전 추세 지속 -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 특화 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2014년에도 ARPU 증가 예상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주이익 환원 정책 강화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SDI, NAVER, LG생활건강의 발행주식유통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건설: 3Q preview: 예상보다 느린 회복

■ 해외 리스크 레벨은 낮아졌으나 해소 시기는 지연

2분기 실적 이후 건설사의 이익 추정 상황이 한차례 이뤄졌다. 3분기 대형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높아진 컨센서스를 12% 하회할 전망이다. 주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3분기는 영업일수가 짧아 2분기 대비 매출 규모가 작다. ② 다수의 해외 문제현장 완공이 올 4분기~2015년 상반기로 2~3개 분기 가량 지연되며 해외 원가율의 변동성이 커질 시기다[그림 1,2]. 큰 그림에서 실적의 방향성을 되돌릴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업체별 실적 차별화가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복기에 접어든 주택 사업이 해외 변동성을 어느 정도 상쇄하겠지만 주택 이익의 기여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3분기 preview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해외 현장의 노이즈 속에서도 3분기 대형사의 합산 영업이익률은 2분기 3.4%와 유사한 3.2%로 예상된다.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대비 4.7%p 개선이 예상된다. ② 그러나 문제성 해외현장의 사이클이 길어 4분기 원가율의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③ 주택이 해외 부진을 만회하고 있다. 미착공 PF가 없던 현대산업, 삼성물산의 이익 회복이 가장 빠르고 지금 PF를 해소하고 있는 타사들은 주택의 의미 있는 이익 기여는 2015년 하반기부터 기대 가능하다. 4분기를 바닥으로 대부분의 업체는 2015년 손익 개선, 2016년 정상화를 예상한다.

■ 이익의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업체는 현대산업과 삼성물산

비교적 확실한 이익 상승 사이클에 접어든 업체는 현대산업(012630, 매수)과 삼성물산(000830, 매수)으로 판단한다. 주택포선이 큰 일부 업체들도 이를 후행하겠으나 프로젝트 절대 마진과 PF, 해외 현장에 따라 이익의 회복 속도는 예상을 하회할 전망이다. 대림산업(000210, 매수)과 대우건설(047040, 중립)은 해외 원가율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높은 시기이며 나머지 업체들은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우리는 3분기 대림산업의 DSA 법인에 추가 비용 400억원을 가정했는데 이를 하회할 경우 예상보다 upside가 있다. PF 정리가 늦고 해외 문제현장 개수가 많은 종합 건설사의 이익 회복이 느린 편이다.

■ 외형보다 ROE 개선이 포인트, Top picks 삼성물산과 현대산업 유지

4분기 해외수주는 현대건설의 러시아 비료(30억달러), 삼성엔지니어링의 러시아 폴리에틸렌(8억달러), 캐나다 오일 샌드(10억달러) 등이 예상될 뿐 그 외에는 대부분 저조하다[표 3]. 경기 둔화, 중국과 인도의 저가 공세 감안 시 근본적인 전략 전환(선진시장, 고부가가치 상품 진출)이 없다면 해외 성장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업 내 외형 성장보다 ROE 개선 여부가 중요하다. 시장을 과점할 수 있고 B/S가 깨끗한 업체 위주로 선별 접근을 권유한다. Top picks로 삼성물산과 현대산을 유지한다. 삼성물산은 비수기에 QoQ 성장이 예상돼 강한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산업재 섹터 내에서는 삼성그룹 EPC 업체들이 선진시장 진출에 비교적 빨리 움직이고 있다. 현대산업은 현금흐름 개선이 빠르고 '수원4차' 자체사업의 계약율은 한달만에 60%대에 근접해 연말 목표 50%를 이미 상회했다. 이는 최소 2016년까지 고성장을 담보하는 요인이다.

대형사는 주택 공급계획을 연초대비 늘리고 있으며 분양률도 양호하다[표1]. 그러나 9/1대책의 핵심은 공공택지 판매 축소다. 따라서 향후 디벨로퍼인 현대산업과 한국토지신탁(N/A)으로 주택시장의 과점화를 예상한다. 한편 대림산업은 해외 원가율 악화로, 현대건설은 이머징 리스크로 주가 낙폭이 컸다. 그러나 15F PBR 각 0.5배(2009년 이래 최저), 0.9배(2006년 이래 최저)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추가 downside는 제한적으로 판단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음식료·담배: 원화약세기 음식료 투자 전략

■ 음식료는 대체로 원화약세가 불리하나...

9월부터 진행된 급격한 원화 약세로 음식료업체의 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음식료는 원재료인 곡물을 수입하고, 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많아 대표적인 원화 약세 피해 업종이다. 당사 거시경제전망팀은 10월 2일자로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를 반영해 4분기와 내년 평균 환율 전망치를 기존 1,020원/달러와 1,015원/달러에서 1,070원/달러, 1,081원/달러로 상향했다. 기말 환율도 순서대로 각각 1,000원/달러, 1,020원/달러에서 1,070원/달러, 1,100원/달러로 상향했다.

■ 해외 매출 비중 높은 업체에는 유리

원화 약세 영향을 2가지로 구분해 우선 영업적인 면을 살펴보면, 수출이나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의 원화매출액이 증가하고, 대부분의 음식료업체에게 수입 재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해외 매출액 비중이 높은 오리온은 상반기 대비 최근 위안화, 동화의 원화대비 절하폭(YoY)이 줄어 환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 줄어들 전망이다. KT&G도 수출(2014F 별도 매출액의 21% 비중)이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므로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 곡물가격 하락 감안하면 원가 악영향도 제한적

재료비 상승은 환율 이외에 국제 곡물가격 동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행히 곡물가격은 201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곡물선물가격은 2분기에 엘니노 우려로 잠깐 반등했다 주요 생산지인 미국과 유럽의 작황 개선 소식으로 다시 반락했다. 10월 1일 기준 환율은 1,063원/달러로 3개월전대비 5.1% 상승했는데 소맥, 옥수수, 대두, 원당을 같은 비율로 구성한 곡물달러인덱스는 같은 기간에 21.1% 하락했다. 즉 원재료비 부분에서는 원화 약세로 인한 피해보다 곡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곡물재료비는 안정될 것이다. 달러강세 시 곡물시장으로부터 투기 세력이 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곡물가격은 바이오에너지 원료용 사용이 줄어 구조적으로 수요 기반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곡물선물달러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4~6개월의 시차를 고려한 음식료업체의 곡물재료비 투입단가도 4분기에 3분기대비 -1~-15% 하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분기대비 -10% 전후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외화부채 많은 기업과 외화자산 많은 기업은 구분할 필요

환율은 음식료업체 영업외수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외화부채와 외화자산의 규모가 각 업체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KT&G는 2013년말 기준으로 670백만달러의 순외화자산을 보유 중이다. 달러강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CJ제일제당은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인데 해외 매출액이 많아지면서 원화약세의 부정적 영향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CJ제일제당의 2013년말 순외화부채는 환헤지를 감안해도 약 834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결론: 원화약세 수혜는 오리온, KT&G 순으로 커

결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면 오리온, KT&G에는 긍정적이지만 농심과 CJ제일제당에는 부정적일 전망이다. 오리온은 해외 매출액 비중이 크고, KT&G는 수출과 외화자산 exposure가 큰 쪽은 아니지만 원재료 수입 금액을 넘어선다. 반면 농심은 원재료 중 환율에 노출된 비중이 크고 CJ제일제당은 원재료뿐 아니라 영업외수지에서 환 exposure가 크다. 주요 음식료업체의 EPS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오리온 +2.85%, KT&G +0.41%, 빙그레 +0.40%, 롯데칠성 -0.94%, 롯데제과 -0.97%, 농심 -1.60%, CJ제일제당 -1.80%의 민감도를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 당분간 조정 국면이 예상되나 금리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상기한 민감도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전기·전자: 좋은 실적 vs. 나쁜 수급

■ 실적 호조 종목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

9월 국내 IT 종목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으나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가 훨씬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실적 호조 종목들의 주가 수준은 이제 과매도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는 펀더멘털 요인이 아니라 의류, 화장품, 유틸리티 업종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의 rebalancing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돼 10월에는 실적 호조 IT 종목의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 삼성전자 실적 악재, 하지만 하반기 PC/TV/스마트폰 수요는 나쁘지 않아

삼성전자의 실적이 휴대폰 부문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당분간 휴대폰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국내 IT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センチ멘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반기 PC/TV/스마트폰 수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LTE폰 가입자의 대폭 증가로 중국 스마트폰 수요 역시 양호). 또한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도 IT 세트 업체들에게 우호적이다.

■ 10월에 집중해야 할 주요 포인트

- 1)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 2) 아이폰6 시리즈 판매대수
- 3) 중국 국경절 TV 수요
- 4) 삼성전자의 4분기 휴대폰 재고조정 강도

■ 아이폰6 판매 양호, DRAM과 LCD패널 가격도 좋을 전망

9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6 시리즈는 iOS 8 오류와 밴드케이트 등이 발생했지만 대면적 디스플레이 장착 효과로 글로벌 판매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타이트한 DRAM 공급의 영향으로 10월 PC DRAM 가격 역시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국경절 TV 수요와 PDP TV의 퇴출로 LCD 패널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Top pick은 LG이노텍과 SK하이닉스, 차선후주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10월 top pick은 LG이노텍과 SK하이닉스로 9월과 같다. LG이노텍은 최근 펀더멘털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양호한 하반기 실적이 주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DRAM 수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며 견조한 실적이 주목 받을 것이다. 차선후주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제시하는데, LG전자는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도 G3 판매대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6 모델링과 양호한 LCD 수급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삼성SDI(006400)

매수(유지)
목표가: 170,000원(하향)
종가(10/2): 121,000원

단기적 실적 모멘텀이 다소 약화

■ 목표주가를 170,000원으로 하향 조정, 하지만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

삼성SDI에 대한 목표주가를 200,000원에서 170,000원으로 15% 하향조정한다. 2014년 EPS를 67% 하향조정하여 IT용 2차전지, ESS, 케미컬 등에서 단기적 실적모멘텀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사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 약한 실적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사는 1) EV용 2차전지에 대한 높은 성장스토리를 보유 중이고, 2) PBR 측면에서 동사의 자산가치가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3) 여전히 동사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최대 수혜종목이기 때문이다.

■ 3분기 영업이익은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378억원으로 전망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은 가이던스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378억원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1)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출하대수와 수익성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동사의 IT용 2차전지 역시 출하대수와 수익성의 하향조정이 필요하고, 2) ESS 수요의 경우 일본 시장은 강하지만 선진국 시장에서 예상보다 약하며, 3) 케미컬 부문에서는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ABS와 EP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을 전망이다. 하지만 편광필름은 3분기에 흑자전환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Bended Display의 출시 영향으로 OLED 소재 역시 순조롭게 매출액이 증가 중이고,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의 안정적 성장 영향으로 반도체용 전자재료도 양호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 EV용 2차전지는 모멘텀이 서서히 강화되는 중

동사의 EV용 2차전지는 서서히 모멘텀이 강화되는 중으로 판단된다. 1) 동사의 2차전지가독점 공급되는 BMW i3의 8월 글로벌 판매대수가 7월대비 46% 대폭 증가한 1,781대를 기록했고, 2) 8월부터 BMW i8의 미국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3) Tesla와의 원통형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4) 2차전지를 사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전기모터가 내연기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의 시장 역시 조만간 본격 개화될 전망이다.

■ 단기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약한 상황.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권고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을 하향조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동사의 실적모멘텀은 약한 상황이다. 하지만 동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매력도(성장성이 높은 EV용 2차전지, PBR 0.8배에 불과하여 저평가된 자산가치 등)는 여전히 높아 주가는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삼성전기가 보유 중이었던 삼성SDS 지분을 구주매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 가치가 시장가치로 높아지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표 4>참조) 동사의 중장기적인 매력포인트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5,771	187	1,472	33,885	361.6	641	4.5	11.1	0.9	21.8	1.0
2013A	5,016	(27)	131	2,957	(91.3)	403	54.8	19.6	1.0	1.8	0.9
2014F	8,276	86	38	1,942	NM	756	62.3	17.8	0.8	0.5	1.0
2015F	8,395	328	258	6,889	254.7	1,012	17.6	13.3	0.8	3.5	1.0
2016F	9,127	496	518	11,930	73.2	1,198	10.1	11.2	0.7	6.9	1.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영원무역(111770)

매수(유지)
목표가: 78,000원(상향)
종가(10/2): 64,000원

3Q14 Preview: 성수기에 더욱 돋보이는 경쟁력

■ 양호한 흐름 이어갈 3분기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7%,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전년대비 8% 하락했으나 달러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가 예상되어 양호한 성장은 3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851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매출 호조는 1) VFC를 비롯한 미주 주요 바이어 오더 회복과 2) Engelbert Strauss, Lulu Lemon, Adidas 등 성장 바이어 오더 확대, 3) 2013년 라인 증설 및 인력 충원 효과에 기인한다. 매출 호조와 2013년 대규모 인력 충원 이후 생산성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21.9%로 전년동기대비 1.1%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동남아 의류 OEM 수요 확대를 대비한 준비는 한창, 2018년 매출 2조원을 향해

동사의 해외 공장 인력은 2003년 24,000명 수준에서 2010년 54,000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는 2017년 동사가 인력 10만 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2010년보다 약 두배 인력을 확보하면서 2018년 매출 2조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년 상반기 말 기준 약 73,000명을 확보했다. 2013년 8,300명 신규 고용에 이어 2014~2017년 까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위주로 지속적인 인력 충원과 라인 확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는 영원무역홀딩스가 보유한 자체 공단 KEPZ에서 증설이 진행형으로 현재 약 55,000명 인력에서 2017년 78,000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인력난으로 2011년~12년 총인원이 감소했으나 2013년부터 재차 증가했다. 베트남은 현재 전체 인력 중 약 14%를 차지하는데 최근 투자한 Bacgiang, Hungyen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9,350명 인력에서 약 12,000명으로 1~2년 이내에 충원이 가능하며 2017년까지 1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망이 re-rating 견인할 것, 목표주가 78,000원으로 상향

금년은 영원무역이 아시아 주요 스포츠의류 OEM 중 가장 높은 성장과 실적 개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표주가를 기존 70,000원에서 78,000원 (2015F PER 20배)으로 상향하고 의류 업종 내 Top pick으로 유지한다. 선두 스포츠의류 OEM인 Eclat의 2015년 PER 20배와 동일한 배수를 적용했으며 동사의 역사적 고점 PER보다 10% 할 증된 수준이다. 2014년은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 2015년은 영원무역의 성장성이 Eclat을 넘어선다. 동사의 최근 공격적인 정보는 1) 스포츠의류의 구조적인 성장, 2) 중국 OEM 경쟁력 약화에 따른 타이탄 공급 상황에 근거한다고 판단한다. 동사는 증설과 함께 품목 다각화, 수직 계열화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진행해 향후 더욱 다양한 고객군 확보와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1,059	186	119	2,909	1.4	217	11.3	5.9	2.1	20.0	0.6
2013A	1,108	161	111	2,513	(13.6)	190	16.9	9.4	2.2	14.8	0.5
2014F	1,248	193	135	3,035	20.8	231	21.1	11.9	2.9	14.7	0.3
2015F	1,437	240	173	3,914	28.9	286	16.4	9.5	2.5	16.4	0.3
2016F	1,637	288	208	4,705	20.2	343	13.6	7.8	2.1	16.8	0.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차(005380)

매수(유지)
목표가: 250,000원(유지)
종가(10/2): 180,000원

3Q14 Preview: 4분기에 주목

■ 4분기 영업이익 증가세 재개될 전망

투자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50,000원(12개월 forward PER 8배, 과거 평균을 10% 할인)을 유지한다. 3분기 실적은 부진세가 이어지지만 4분기에는 신모델 효과 강화, 가동률 상승과 더불어 원/달러 반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3분기 영업이익은 원/달러 하락과 기말환율 급등으로 부진할 것이다. 그러나 환율이 상승한 가운데 신형 LF Sonata 미국 판매 본격화, 중국 ix25 compact SUV, 유럽 신형 i20 출시가 4분기 실적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4% 감소에서 4분기에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대의 주가는 12개월 forward 성장률이 9.5%임에도 불구하고 6.2배에 거래되고 있다.

■ 부진한 3분기 실적 예상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6조원(+3.7% YoY), 1조 8,820억원(-6.4% YoY)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9.7%에서 8.7%로 하락할 전망이다. 3분기 국내공장 판매는 388,007대(내수판매 155,572대(+1.5% YoY), 수출 232,435대(-6.3% YoY))로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했다. 그러나 동기간 해외공장 판매는 4.8% 증가한 740,674대를 기록해 총판매는 1.9% 증가한 1,128,681대를 달성했다. 3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027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하락했으나 기말 환율은 2분기 말 1,012원에서 1,055원으로 급등했다. 6조원에 달하는 판매보증 충당부채(달러 표시부채 3~3.5조원) 때문에 기말 환율 상승은 동사 실적에 부정적이다. 한편 LF Sonata는 6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해 6~9월 동안 미국에서 41,918대가 팔렸다.

■ 4분기 신모델 효과 강화

14년 LF 미국 목표대수가 92,500대임을 감안하면 4분기 LF 판매는 급증할 전망이다. Sonata의 미국 인센티브는 5월 2,582달러를 기록한 후 6월 2,184달러, 7월 1,943달러, 8월 1,770달러, 9월 1,596달러까지 내려왔다. YF의 미국 재고가 8월과 9월 초 각각15,000대, 7,000대에서 10월 초 4,870대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Sonata 인센티브 감소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동사는 9월에 미국에서 1.6L 터보 엔진을 장착한 Sonata Eco(177hp, mpg 28 city/38 hwy vs 2.4L GDI: 185hp, 25 city/37 hwy, 2.0L turbo: 245hp, 21 city/32 hwy)를 출시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6일부터 프리미엄 세단 Aslan의 사전계약이 시작됐다. i20의 신형 모델인 GD는 2014 파리오토쇼를 통해 공개됐고 compact SUV인 ix25는 10월부터 중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84,470	8,441	8,567	30,008	11.6	10,965	6.0	6.7	1.1	20.5	1.1
2013A	87,308	8,315	8,542	29,921	(0.3)	10,867	6.0	6.7	0.9	17.2	1.1
2014F	89,620	8,125	8,315	29,127	(2.7)	10,679	6.2	6.6	0.8	14.8	1.1
2015F	95,350	8,818	9,079	31,803	9.2	11,481	5.7	6.4	0.7	14.4	1.1
2016F	101,525	9,746	9,866	34,560	8.7	12,544	5.2	5.7	0.6	13.7	1.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10/06(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31.64	2,026.60	2,020.09	1,991.54	1,976.16	1,968.39	
	등락폭	-2.47	-5.04	-6.51	-28.55	-15.38	-7.77	
	등락종목	상승(상한)	305(2)	255(1)	395(4)	190(6)	446(5)	358(7)
		하락(하한)	499(0)	576(4)	440(0)	648(0)	384(0)	481(3)
	ADR	93.25	89.06	88.32	85.38	88.02	87.87	
	이격도	10 일	99.53	99.33	99.12	98.06	97.65	97.68
		20 일	99.14	99.01	98.83	97.62	97.08	96.90
	투자심리	40	40	30	20	20	10	
	거래량 (백만 주)	314	340	323	352	323	315	
	거래대금 (십억 원)	3,924	4,482	4,736	4,441	4,730	4,197	
코스닥	코스닥지수	577.66	569.27	573.22	566.99	569.84	566.27	
	등락폭	0.18	-8.39	3.95	-6.23	2.85	-3.57	
	등락종목	상승(상한)	305(11)	255(6)	395(7)	190(7)	446(9)	389(8)
		하락(하한)	499(1)	576(3)	440(2)	648(1)	384(1)	568(5)
	ADR	92.45	88.80	87.00	82.95	86.38	85.47	
	이격도	10 일	100.29	98.77	99.44	98.50	99.12	98.76
		20 일	100.81	99.33	99.99	98.93	99.41	98.80
	투자심리	40	40	30	20	20	10	
	거래량 (백만 주)	398	409	387	388	332	353	
	거래대금 (십억 원)	2,267	2,389	2,390	2,595	2,136	2,267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24.6	1,275.1	963.8	176.3	140.5	277.7	66.3	31.3	271.735	52.0
	매도	1,784.9	1,477.2	915.9	176.2	129.9	232.7	81.5	37.5	258.2	37.5
	순매수	139.7	-202.1	47.9	0.0	10.7	44.9	-15.1	-6.2	13.6	14.5
	10월 누계	384.4	-785.7	342.9	17.8	5.4	229.6	-32.6	-22.6	145.3	58.4
	14년 누계	111.0	6,715.4	-5,455.1	-3,155.8	583.4	-2,825.8	-561.9	-2,022.5	2,527.4	-1,371.3
코스닥	매수	2,013.3	121.8	141.7	30.7	19.0	41.4	17.2	2.5	30.9	14.3
	매도	1,969.9	168.8	130.2	39.3	16.4	26.8	10.0	2.1	35.6	22.1
	순매수	43.4	-47.1	11.5	-8.6	2.5	14.7	7.2	0.4	-4.7	-7.9
	10월 누계	10.2	-49.9	49.0	-10.8	17.3	36.8	4.9	4.8	-4.1	-9.3
	14년 누계	344.6	719.3	-79.7	-19.4	161.6	-246.2	-75.4	-33.1	137.8	-984.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4,338	철강및금속	-3,955
전기,전자	8,284	섬유,의복	-1,012
제조업	6,011	화학	-810
현대차	10,370	LG유플러스	-7,652
기아차	8,081	KODEX 200	-4,665
KODEX 단기채권	7,179	SK	-3,965
KT&G	6,608	현대위아	-3,598
SK텔레콤	6,557	POSCO	-3,456

연		기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9,060	전기,전자	-7,560
증권	7,502	운수창고	-6,082
음식료품	6,686	건설업	-4,330
SK하이닉스	7,691	삼성전자	-7,179
현대증권	4,409	삼성SDI	-4,664
신한지주	4,342	현대글로벌비스	-4,028
SK텔레콤	3,735	LS	-3,641
기아차	2,938	호텔신라	-3,22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3,021	화학	-5,422
통신업	2,729	운수장비	-3,890
음식료품	1,221	유통업	-2,200
KODEX 레버리지	4,520	OCI	-1,746
KT	2,669	기업은행	-1,568
TIGER 경기방어	2,368	기아차	-1,516
삼성SDI	1,551	한화케미칼	-1,247
두산	1,307	현대중공업	-1,20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3,557	철강및금속	-7,844
서비스업	11,359	금융업	-5,354
보험	6,235	유통업	-2,572
현대차	5,697	KODEX 200	-23,947
삼성화재	5,526	POSCO	-7,162
SK하이닉스	4,454	LG전자	-3,064
기아차	3,947	현대건설	-3,060
현대모비스	3,942	하나금융지주	-2,23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35,912	건설업	-7,872
서비스업	13,202	철강및금속	-7,288
통신업	12,947	운수창고	-6,848
KODEX 200	26,291	KODEX 레버리지	-40,975
SK하이닉스	24,709	OCI	-13,839
SK텔레콤	23,860	LG유플러스	-12,001
기아차	18,123	현대건설	-10,102
현대차	14,632	CJ제일제당	-8,071
NAVER	8,248	POSCO	-6,511
SK이노베이션	8,197	LG전자	-6,164
현대모비스	7,698	하나금융지주	-5,789
GKL	6,851	코웨이	-5,215
KT&G	6,452	현대백화점	-4,888

외		국	
순 매 수		순 매 도	
건설업	3,658	전기,전자	-74,987
음식료품	1,603	통신업	-34,254
금융업	1,434	운수장비	-22,022
코웨이	11,732	SK하이닉스	-64,838
OCI	9,142	SK텔레콤	-38,942
현대건설	9,008	KODEX 200	-25,306
CJ제일제당	8,854	NAVER	-19,900
LG유플러스	7,689	삼성SDI	-14,691
KB금융	6,384	한국전력	-13,014
하나금융지주	5,691	현대차	-9,298
LG전자	5,331	POSCO	-7,909
LG생활건강	5,285	KT&G	-7,123
삼성전자우	4,872	현대모비스	-6,57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3,923	방송서비스 -2,490
계약	1,465	인터넷 -611
디지털컨텐츠	1,115	사업지원 -358
원익IPS	2,460	CJ오쇼핑 -1,592
피에스케이	1,855	유진테크 -1,390
삼천당계약	680	휴온스 -907
SBS콘텐츠헤브	634	GS홈쇼핑 -801
매일유업	627	이지바이오 -73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5,532	소프트웨어 -3,708
화학	2,730	반도체 -1,731
디지털컨텐츠	1,154	오락,문화 -1,466
다음	5,532	한국사이버결제 -2,778
에이블씨엔씨	3,712	서울반도체 -2,294
게임빌	1,154	파라다이스 -1,466
로엔	981	동성화인텍 -987
매일유업	779	GS홈쇼핑 -93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장비	250	금융서비스 -244
출판,매체복제	211	도매 -225
음식료,담배	200	통신서비스 -156
솔리드	290	선데이토즈 -257
매일유업	189	CJ프레시웨이 -225
에스엠	178	SK브로드밴드 -153
컴투스	171	성우하이텍 -112
엘엠에스	169	보령메디앙스 -10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2,022	소프트웨어 -2,421
의료,정밀기기	1,789	출판,매체복제 -1,126
소매	820	반도체 -801
게임빌	1,899	한국사이버결제 -1,868
리홈쿠첸	808	메디포스트 -1,560
셀바이오텍	792	에스엠 -1,180
한스바이오메드	764	차바이오텍 -728
뷰웍스	741	매일유업 -559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8,972	소프트웨어 -8,801
반도체	7,535	방송서비스 -5,484
화학	5,940	전문기술 -1,688
원익IPS	6,018	한국사이버결제 -7,625
게임빌	5,405	GS홈쇼핑 -4,152
에이블씨엔씨	5,003	서울반도체 -2,620
피에스케이	2,019	메디포스트 -1,785
조이맥스	1,768	CJ E&M -1,725
리홈쿠첸	1,715	메디톡스 -1,643
오스팀임플란트	1,520	성우하이텍 -1,496
셀트리온	1,488	CJ오쇼핑 -1,361
인바디	1,406	이지바이오 -1,237
위메이드	1,337	휴온스 -1,21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서비스	5,845	디지털컨텐츠 -7,019
계약	4,234	소프트웨어 -5,441
방송서비스	1,465	IT부품 -4,790
선데이토즈	6,665	파라다이스 -2,477
셀바이오텍	4,057	KG이니시스 -2,425
인바디	2,320	다음 -2,323
GS홈쇼핑	2,191	컴투스 -2,131
한국정보통신	1,491	서울반도체 -1,955
원익IPS	1,441	OCI머티리얼즈 -1,461
위메이드	1,181	로만손 -1,195
휴온스	816	게임빌 -1,175
바이오랜드	777	아가방컴퍼니 -1,109
유진테크	760	대한뉴팜 -1,09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SK텔레콤	34 일	CJ제일제당	11 일
롯데칠성	20 일	현대미포조선	10 일
삼성화재	16 일	하나금융지주	10 일
한국셀섹유	16 일	유한양행	9 일
NAVER	16 일	효성	9 일
SK네트웍스	15 일	빙그레	9 일
대덕전자	13 일	OCI	9 일
SK하이닉스	11 일	대한제분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0 일	크루셜텍	11 일
에이블씨엔씨	10 일	동양시멘트	10 일
포스코켄텍	5 일	메가스터디	5 일
위메이드	5 일	웹젠	4 일
동서	4 일	유진기업	3 일
파라다이스	4 일	모두투어	3 일
한국토지신탁	4 일	서부T&D	2 일
심텍	4 일	GS홈쇼핑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NAVER	208,645	삼성전자	61,844
SK텔레콤	113,043	하나금융지주	61,149
기아차	87,721	OCI	37,866
SK하이닉스	74,608	CJ제일제당	28,388
KODEX 인버스	73,408	삼성전자우	26,935
삼성화재	52,124	KB금융	26,633
한국전력	37,502	롯데케미칼	21,624
KODEX 단기채권	33,675	LG전자	20,004

KOSDAQ			
기	관	외	국 인
리홈쿠첸	20,457	다음	11,263
셀트리온	20,158	GS홈쇼핑	8,780
게임빌	14,093	성우하이텍	7,229
파라다이스	6,708	셀바이오텍	4,807
원익IPS	6,148	인바디	4,114
로엔	5,635	성광벤드	3,371
매일유업	4,745	오스템임플란트	3,317
위메이드	4,508	이지바이오	2,80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음식료품	4,728		1,603
삼성생명	1,782		2,340
하이트진로	2,666		375
한국콜마홀딩스	1,519		228
SK	627		775
대현	905		432
GS	76		1,255
무학	1,127		42
세아베스틸	61		1,099
S-Oil	192		866
무림P&P	585		292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의료,정밀기기	1,418		1,439
소매	1,537		575
음식료,담배	139		407
원익IPS	6,018		1,441
셀바이오텍	518		4,057
인바디	1,406		2,320
위메이드	1,337		1,181
리홈쿠첸	1,715		469
셀트리온	1,488		484
바이오랜드	668		777
디엔에프	1,109		79
유진테크	396		760
뷰웍스	197		75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세종공업	15 일	한진중공업	23 일
KOSEF 블루칩	15 일	고려아연	21 일
삼성전자	13 일	SK텔레콤	20 일
TIGER 레버리지	12 일	한화	13 일
KINDEX 레버리지	12 일	KCC	13 일
CJ제일제당	11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12 일
현대건설	10 일	대상	12 일
삼성SDI	10 일	KPX케미칼	12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GS홈쇼핑	21 일	우주일렉트로	9 일
STS반도체	12 일	토탉	9 일
코미팜	11 일	등서	7 일
성우하이텍	9 일	서울반도체	7 일
차바이오텍	8 일	현진소재	7 일
태광	6 일	휴맥스	6 일
CJ오쇼핑	5 일	시그네텍스	5 일
에스엠	5 일	주성엔지니어링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413,044	SK텔레콤	-114,226
삼성전자	-94,734	현대차	-74,308
하나금융지주	-58,994	기아차	-63,594
OCI	-46,052	SK하이닉스	-58,080
POSCO	-34,289	삼성화재	-55,436
삼성전기	-27,601	삼성SDI	-43,222
SK	-27,430	아모레퍼시픽	-38,888
KB금융	-26,674	KT&G	-26,398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15,643	서울반도체	-13,295
서울반도체	-14,361	파라다이스	-12,796
GS홈쇼핑	-12,480	게임빌	-4,771
다음	-9,331	넥슨지티	-3,507
성우하이텍	-6,960	셀트리온	-3,329
CJ오쇼핑	-4,756	등서	-3,065
이지바이오	-3,961	이오테크닉스	-2,034
동성화인텍	-3,191	NICE평가정보	-1,98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철강및금속		-7,288		-14,617		-21,905
전기가스업		-3,274		-13,767		-17,042
유통업		-4,137		-8,247		-12,384
KODEX 레버리지		-40,975		-983		-41,957
삼성SDI		-3,304		-14,691		-17,996
한국전력		-3,188		-13,014		-16,202
POSCO		-6,511		-7,909		-14,420
호텔신라		-1,644		-4,535		-6,179
현대제철		-4,262		-1,885		-6,147
현대백화점		-4,888		-501		-5,389
고려아연		-2,664		-2,659		-5,323
현대글로벌비스		-2,954		-1,063		-4,017
우리금융		-861		-2,996		-3,857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소프트웨어		-8,801		-5,441		-14,242
전문기술		-1,688		-1,442		-3,129
운송장비,부품		-939		-1,393		-2,331
한국사이버결제		-7,625		-311		-7,936
서울반도체		-2,620		-1,955		-4,575
KG이니시스		-131		-2,425		-2,556
컴투스		-189		-2,131		-2,319
로만손		-954		-1,195		-2,149
CJ오쇼핑		-1,361		-649		-2,011
성우하이텍		-1,496		-479		-1,976
CJ E&M		-1,725		-168		-1,893
한글과컴퓨터		-706		-783		-1,489
인터파크		-348		-1,059		-1,40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43	13,221	
대우조선해양	640	11,991	
이마트	50	10,912	
OCI	73	8,901	
기아차	159	8,651	
현대중공업	64	8,181	
LG전자	126	8,118	
삼성전기	156	7,20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서울반도체	162	3,738	
게임빌	24	3,018	
다음	18	2,900	
파라다이스	71	2,437	
CJ오쇼핑	5	1,642	
에스엠	26	962	
매일유업	25	945	
로엔	20	887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256	4,855,618	
POSCO	4,914	1,515,890	
SK하이닉스	26,138	1,231,086	
LG전자	15,301	993,037	
신한지주	17,973	866,278	
KODEX 200	31,401	783,758	
NAVER	982	777,454	
현대중공업	5,764	723,32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8,050	863,674	
CJ E&M	823	551,342	
다음	2,271	362,301	
파라다이스	8,933	308,630	
위메이드	1,225	246,144	
서울반도체	8,613	198,963	
컴투스	953	163,110	
에스엠	2,124	80,802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주 수	순 감	주 수	금 액
운수장비	5,444	종이, 목재		-2,031
서비스업	3,083	통신업		-725
건설업	2,159	전기가스업		-108
대우조선해양	2,460	한솔테크닉스		-1,801
KODEX 200	1,945	한솔홈데코		-1,793
한진중공업	1,598	LG유플러스		-986
미래산업	1,552	쌍방울		-699
IHQ	1,361	호텔신라		-485
SK하이닉스	1,285	BS금융지주		-352
SK증권	1,080	대호에이엘		-258
현대산업	1,035	메리츠금융지주		-245
한진해운	837	이수페타시스		-217
삼성전기	826	SH에너지화학		-21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주 수	순 감	주 수	금 액
반도체	2,126	인터넷		-535
음식료, 담배	1,825	일반전기전자		-110
디지털컨텐츠	1,507	비금속		-68
이지바이오	1,610	다음		-643
서울반도체	912	바른전자		-200
차이나그레이트	393	오스텀임플란트		-162
넥슨지티	388	한글과컴퓨터		-158
성광밴드	373	텍셀네트컴		-156
에스엠	350	한국사이버결제		-138
KT뮤직	288	메디프론		-125
와이지-원	229	하림홀딩스		-123
유진테크	227	이큐스앤자루		-102
다날	225	팜스웰바이오		-95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10/06(월)
외국인	6,715.4	-785.7	-545.0	55.8	184.9	-197.4	-386.2	-202.1
기관계	-5,455.1	342.9	294.7	-64.6	16.4	35.2	259.9	47.9
(투신)	-2,825.8	229.6	334.9	57.1	48.2	8.3	176.3	44.9
(연기금)	3,935.8	66.6	-5.9	-43.1	-29.4	36.7	17.5	12.5
(은행)	-2,022.5	-22.6	-29.2	-4.3	-2.2	-4.1	-12.3	-6.2
(보험)	583.4	5.4	-21.8	-23.6	-3.7	15.5	-20.8	10.7
개인	111.0	384.4	270.8	-10.1	-103.5	144.5	100.2	139.7
기타	-1,371.3	58.4	-20.5	18.9	-97.8	17.8	26.1	14.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KOSPI	1,825.7	1,997.1	2,011.3	2,031.6	2,026.6	2,020.1	1,991.5	1,976.2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5,095.6	16,123.9	15,602.7	17,106.1	15,185.1
(증감액)	1,996.5	3,611.7	334.1	357.9	1,028.3	-521.2	1,503.4	-1,921.0
(회전율)	34.2	26.7	29.9	41.0	42.6	45.7	41.1	45.2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196.8	1,042.2	-514.5	1,549.4	-2,055.1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5,394.7	5,403.1	5,402.8	5,365.3	5,339.6
미수금	1,877.0	1,241.0	929.0	145.1	145.3	129.7	153.6	152.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전체 주식형	76,706	-7,686	239	17	87	-50	22	217
(ex. ETF)		-5,402	209	2	69	17	32	177
국내 주식형	59,532	-5,546	263	26	88	-43	32	231
(ex. ETF)		-3,261	233	11	70	25	42	191
해외 주식형	17,174	-2,140	-24	-9	-1	-8	-10	-15
(ex. ETF)		-2,141	-24	-9	-1	-8	-10	-15
주식 혼합형	10,143	81	-10	19	11	2	-5	-5
채권 혼합형	25,267	1,326	-79	126	10	64	-137	58
채권형	66,171	5,548	1,404	-60	252	-1	812	592
MMF	87,388	19,990	2,407	-1,656	144	-1,632	349	2,05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30(화)	10/01(수)	10/02(목)	10/03(금)	10/06(월)
한 국	6,712	-737	-1,300	175	-186	-364	-	-187
대 만	9,622	-452	-738	-147	-239	-204	131	-140
인 도	13,814	0	-140	-26	-	-	-	-
인도네시아	3,999	-233	-114	-74	-32	-122	-71	-8
태국	-97	-9	193	-13	51	-19	-41	-
남아공	2,775	193	215	69	116	16	61	-
필리핀	1,280	-43	-46	-3	-11	-13	-1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3년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10/06(월)
회사채 (AA-)	3.29	2.70	2.71	2.68	2.61	2.63	2.64
회사채 (BBB-)	8.98	8.45	8.46	8.43	8.36	8.38	8.39
국고채 (3년)	2.86	2.31	2.32	2.30	2.22	2.25	2.26
국고채 (5년)	3.23	2.54	2.54	2.0	2.43	2.43	2.44
국고채 (10년)	3.58	2.92	2.91	2.85	2.80	2.83	2.85
미 국채 (10년)	2.97	2.53	2.48	2.49	2.38	2.43	-
일 국채 (10년)	0.74	0.52	0.52	0.53	0.53	0.52	-
원/달러	1,055.40	1,044.40	1,053.80	1,055.20	1,062.65	1,061.40	1,069.00
원/엔	1,003.99	956.50	963.87	963.04	970.81	966.40	976.70
엔/달러	105.12	109.19	109.33	109.57	109.46	109.82	109.45
달러/유로	1.38	1.27	1.27	1.27	1.26	1.25	1.25
DDR3 1Gb (1333MHz)	1.37	1.42	1.42	1.42	1.42	1.42	-
DDR3 2Gb (1333MHz)	2.54	2.24	2.24	2.24	2.24	2.24	-
NAND Flash 16Gb (MLC)	3.43	2.42	2.42	2.42	2.42	2.42	-
CRB 지수	280.17	280.95	283.82	279.21	278.58	276.34	-
LME 지수	3,182.9	3,106.9	3,116.2	3,091.6	3,075.2	3,069.2	-
BDI	2,277	1,049	1,062	1,063	1,055	1,037	-
유가 (WTI, 달러/배럴)	98.47	93.54	94.57	91.16	90.73	89.74	-
금 (달러/온스)	1,189.10	1,213.75	1,219.50	1,216.50	1,216.50	1,195.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9	30	10/1	2	3
韓> 8월 경상수지 (달러) (72.7억, n/a, 78.4억) 美> Evans 연준이사 연설 8월 미결주택매매 MoM (-1.0%, -0.5%, 3.2%)	韓> Powell 연준이사 연설 8월 광공업생산 SA MoM (-3.8%, 0.1%, 1.5%) 美> 7월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YoY (6.75%, 7.40%, 8.07%) 9월 시카고 구매자협회지수 (60.5, 62.0, 64.3) 9월 소비자가대지수 (86.0, 92.5, 93.4) 유럽> 9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3%, 0.4%) 中> 9월 HSBC 제조업 PMI (50.2, 50.5, 50.5) 日> 8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1.5%, 0.2%, 0.4%)	韓>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1%, 1.5%, 1.4%) 9월 HSBC 제조업 PMI (48.8, n/a, 50.3) 9월 수출 YoY (6.8%, 6.9%, -0.2%) 9월 수입 YoY (8.0%, 6.5%, 3.1%) 中> 9월 광방 제조업 PMI (51.1, 51.0, 51.1) 美> 9월 ADP 취업자 변동 (21.3만, 20.5만, 20.2만) 9월 ISM 제조업지수 (56.6, 58.5, 59.0)	美>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8월 제조업수주 (-10.1%, -9.5%, 10.5%) 유럽> ECB 금리 결정 (0.050%, 0.050%, 0.050%)	美> 9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24.8만, 21.5만, 18.0만) 9월 실업률 (5.9%, 6.1%, 6.1%) 8월 무역수지 (달러) (-401억, -408억, -403억) 유럽> 8월 소매판매 MoM (1.2%, 0.1%, -0.4%)
6	7	8	9	10
독일> 8월 공장수주 MoM (-5.7%, -2.5%, 4.9%)	日> 일본중앙은행 본원통화목표 (n/a, 270조엔, 270조엔) 8월 예비 선행지수 (n/a, n/a, 105.4) 독일> 8월 산업생산 SA MoM (n/a, n/a, 1.9%) 美> George 연준이사 연설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Dudley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美 염	日> 9월 경기관찰조사 현행 (n/a, n/a, 47.4) 8월 경상수지 (엔) (n/a, 2333억, 4167억) 美> 9월 FOMC 의사록 공개 버냉키 전 연준의장 연설 실적발표> 美 코스트코, 몬산토, 알코아	日> 8월 기계수주 MoM (n/a, 0.6%, 3.5%) 美> Bullard 연준이사 연설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드라기 ECB총재 연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 실적발표> 美 펩시	中> 9월 신규 위안화 대출(~15일) (n/a, 7500억, 7025억) 美> Plosser 연준이사 연설 9월 재정수지 (달러) (n/a, 720억, 751억) 세계은행/IMF 연례 총회
13	14	15	16	17
中> 9월 수출 YoY 9월 수입 YoY	美>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유럽> 8월 산업생산 SA MoM	韓> 9월 실업률 SA 금통위 금리 결정 中>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日> 8월 최종 광공업생산 MoM 독일> 9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9월 소매판매 추정 MoM 연준 베이지북 공개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전망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9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9월 주택착공건수 10월 예비 미시간대 기대지수 유럽> Eurostat GDP 전망 발표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